

##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

정원범 (대전신학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한반도 분단과정과 통일의 필요성

### III. 평화통일신학의 의미와 목표

1. 평화통일신학의 의미
2. 평화통일신학의 목표

### IV.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역사

### V.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

1. 교회윤리적 과제
2. 신학적인 과제
3. 사회윤리적 과제

### VI. 나가는 말

---

• ABSTRACT •

---

Ethical, Missional Tasks of the South Korean Church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hung, Won-B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thical, missional tasks of the South Korean Church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unification movement is the ethical and missional task of the Korean Church. For this purpose, first, this research explains the process of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And this study argues the theological reasons for it: 1) the reunification movement is the action of fulfilling the mission of reconciliation, 2) it is the action of fulfilling the mission of love and justice, 3) it is the act of fulfilling the mission of the realization of the Kingdom of God. Lastly, this research suggests the ethical and missional tasks of the South Korean Church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such as the aspect of church ethics in terms of prayer, repentance and church renewal movement, the theological reflections that make paradigm shift from dualistic theology based on extreme anti-communism ideology and division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theology, and the social ethical viewpoints for justice, reconciliation, and peace.

**Key words:** The Division of Korea,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Ethical/missional Tasks for Reunification, Christian Social Ethics

---

## I. 들어가는 말

어느덧 우리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게 되었다. 분단의 상처와 아픔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분단 7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라는 사실로 인해 분단 70년의 세월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분단이 된지 70년이 되었건만 이산가족들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도 없고, 살아 있음을 알았다 해도 자유롭게 서로 만날 수 없는 한스런 세월을 70년간 살아온 것이다. 도대체 이런 비극적인 분단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 분단 7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분단극복을 위해 남한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민족통일을 위한 남한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등등 여러 가지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필자는 통일운동은 남한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라는 전제 하에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한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sup>1)</sup>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 분단의 과정과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신학적 토대로서 평화통일신학의 의미와 목표를 살펴본 후 남한교회의 통일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한교회의 윤리,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여기서 윤리란 스탠리 하위와즈의 견해를 따라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교란 카를로스의 견해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Carlos F. Cardoza-Orlandi, *Mission: An Essential Guid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2), 15.)

## II. 한반도 분단과정과 통일의 필요성

한반도 분할론은 일본에 의해 나왔던 것으로 그 기원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sup>2)</sup>, 1945년 한반도의 실제적인 분할은 1910년 일본의 한반도 침탈이 그 원인이었다. 동경대 교수 화전춘수는 “한반도 분단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본의 패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sup>3)</sup>고 말함으로써 이 점을 시인한 바 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의 야욕은 19세기 후반 이후 다시 드러났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와 1895년 시모노세끼조약을 체결하여 청나라의 조선의 종주권 포기를 확보했고, 1902년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한층 강화했다. 1904년에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 다졌고, 1905년에는 미일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종주권을 완전히 확보했다. 급기야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였다.<sup>4)</sup>

그리고 35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이 분단의 원인은 무엇인가? 통일원은 “첫째, 1945년 8월과 9월에 시작된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이다. 둘째, 1946년 초의 신탁통치를 둘러싼 한반도 내의 균열 구조이다. 셋째, 한반도 독립국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6년과 1947년에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이다.”<sup>5)</sup>라고 주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

2) Noh, Jong-Sun, *The Third War: Christian Social Ethics*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Press, 2000), 95.

3) 화전춘수, “日 ‘역사의 진실’ 회피 못한다.” 『동아일보』 1995년 2월 2일.

4) 남태욱, 『한반도 통일과 기독교 현실주의: 라인홀드 니버를 중심으로』 (서울: 나눔사, 2012), 19.

인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에 그 원인이 있다. 물론 이 분단은 열강들 사이에서 이미 논의된 것이었다. 한반도의 분할은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알타회담과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을 거쳐 국제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알타 회담의 결정에 따라 1945년 8월 9일에 참전한 소련군이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미군은 1945년 9월 8일에 남쪽 지역에 들어왔다. 미국 측은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고 한반도에 잔류해 있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하여 38도선의 분할 점령을 제안하였다. 소련이 이에 동의하여 한반도는 광복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sup>6)</sup>에 의해 분할 점령되면서 한반도가 분단이 된 것이다.<sup>7)</sup> 이렇게 한반도의 분단이 강대국들의 횡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내부의 분열적 요인이 결합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 다수의 통일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보면, 통일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5%에서 9%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따라서 21

5) 통일교육원, 『2013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원 통일교육원, 2013), 58.

6) 위의 책, 58.

7) 미국의 UCC(United Church of Christ)교단은 1987년도에 발표한 “Peace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문서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미국)가 한국의 분단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맡았던 역할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 우리의 정부, 군부와 경제계는 각각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시 고백해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Christian Conference of Asia and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for Democracy in Korea, ed. *Reunification: Peace and Justice in Korea*, 80.)

8) 2011년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한 개인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7.1%로 나타났다. (임성빈, “세대차이와 통일인식에 대한 신학적 반성,” 『장신논단』 46-2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4), 257.)

세기 한민족의 희망찬 미래와 개인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왜 통일을 해야 할까? 통일원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sup>9)</sup> 첫째로, 현재 정권 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분단구조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분단구조는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인해 엄청난 자원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고통과 손실 등 상당한 비용을 유발시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분단의 구조에 따른 상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소모적인 자원 낭비와 비용의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다.”<sup>10)</sup> 둘째로,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원초적인 이유

9) 통일교육원은 통일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평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며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둘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은 전쟁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자원과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준다. 통일로 인한 군사비 감소,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의 상호 보완적 활용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 확보로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하고 경제규모를 키워 강대국으로 나아갈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통일을 이룩한다면 활동무대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되고, 나아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은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민족국가를 이뤄왔으나 분단·전쟁으로 인해 민족의 역사적인 정통성이 약화됐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공동체를 구현하고 민족문화의 융성을 위해 실현돼야 한다. 넷째로, 국제적 차원에서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거해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핵과 인권문제 등 ‘북한문제’는 그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남북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10)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이해』, 13.

는 남과 북이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왔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11)</sup>

셋째로, “통일이 되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전쟁 위협을 해소해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뿐 아니라 내부의 이념적 대립을 종결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론결집을 가능하게 한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의 확보를 통해 비약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국토 면적의 확장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를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통일은 내수 시장의 확대와 대륙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활로를, 개인에게는 다양한 직업 선택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sup>12)</sup>

끝으로,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 해소와 북한 주민의 삶 개선 차원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폐해를 없애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통일은 분단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없애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sup>13)</sup>

11) 위의 글.

12) 위의 책, 13-14

13) 위의 책, 14.

이 외에도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기독교인이 남한과 북한과의 증오하고 적대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같은 민족 간에 화해와 평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일로서의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윤리, 선교적 과제이다.(고후 5:18) 둘째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과 인권을 유린당하는 탈북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근본적으로 돕는 일과 권력 유지를 위해 분단 상황을 악용해오면서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왔던 기독교 세력의 불의로부터 남한사회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일로서의 통일운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웃사랑과 정의 실천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임무이다. 셋째로, 통일운동은 기독교인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에서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구현해가고자 할 때 기독교인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우선적인 선교적 과제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나라이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구현해나가야 한다면, 기독교인은 마땅히 인종과 국가와 계급을 초월한 화해와 평화와 일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와 지구 세계에서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 III. 평화통일신학의 의미와 목표

#### 1. 평화통일신학의 의미

평화통일신학이란 무엇인가? 평화통일신학이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서의 통일신학의 전제와 방법과 목표가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칭하는 바 통일신학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용어는 통일의 전제와 방법과 목표가 평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통일신학은 기본적으로 평화신학임을 말해준다.<sup>14)</sup> 이러한 기

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평화통일신학의 전제와 근거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평화통일신학은 민족분단에 대한 죄책고백을 전제로 한다. 이 점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에서 강조한 바 있는데 이 선언에 따르면 “한국 민족의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 냉전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죄악의 결과”<sup>15)</sup>이며 동시에 한반도 안에서의 모든 구조악의 원인이다. 따라서 평화신학으로서의 통일신학은 한반도 분단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과 그동안 한국교회가 저질러 온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가 무엇이었는데 대해 바르게 성찰하는 일과 아울러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모든 죄에 대해 회개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화통일신학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신앙과 기독교적 삶의 궁극적인 모델과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유한 다양성과 동등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지닌 가운데 친교하는 공동체적 존재이다.<sup>16)</sup> 칼 바르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고독하게 자족적이고 자아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적 본성 안에서 상호관계적인 공동체로 존재하신다.”<sup>17)</sup> 다시 말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홀로 고고하게 자족하는 하나님, 인간의 지배와

14) 박종화, 『평화신학과 에큐메니칼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6-17; 신옥수, “평화통일신학의 형성과 과제: 하나님나라 신학의 빛에서,” 『선교와 신학』 35집 (2015), 17.

15) NCCK,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 (1988년 선언되었기에 88선언이라고도 함) 허호익, 『통일을 위한 기독교신학의 모색』 (서울: 동연, 2013), 408-409.

16) Michael Downy,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New York: Paulist Press, 1997), 45.

17)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 402; 김현진, 『공동체적 교회회복을 위한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53. 재인용.

독재를 정당화시켜 주는 독재자 하나님, 군주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유일독재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사귌)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공동으로 정의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수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sup>18)</sup>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다.<sup>19)</sup> 또한 삼위일체는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인격들의 교제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살아 계시며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은 모든 성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의 벽을 넘어서서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랑의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근거요 원천이다. 레오나르도 보프가 말한 대로, “인격들 사이의 교제로서 이해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평등한 형제, 자매의 사회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sup>20)</sup> 따라서 평화통일신학은 우리 신앙과 신학의 근거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서로 평등한 형제, 자매의 공동체,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 2. 평화통일신학의 목표

평화통일신학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나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신학의 목표, 곧 통일의 목표 또는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18) 이신권, 『조직신학입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44; 신옥수, “평화통일신학의 형성과 과제: 하나님나라 신학의 빛에서,” 26.

19)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장경철 역, 『기독교조직신학개론』, 110-115.

20) 위의 책, 114.

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나라이다. 하나님나라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sup>21)</sup>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사건이며 동시에 현재의 실재”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현재에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 선물은 종말론적 구원의 선물인 바, 몸의 구속을 의미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물로 주어지는 바, 그 나라의 축복의 즐거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22)</sup> 따라서 평화통일신학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를 누리는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서의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곧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억압과 불의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며 죄, 죽음, 전쟁과 노예상태, 속박과 포로상태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다.”<sup>23)</sup>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명선언문과 같은 말씀으로 하셨던 눅 4:18-19의 취임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유와 해방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핵심이 바로 자유와 해방의 역사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신학은 하나님의 통치, 곧 죄와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해방의 사역은 말할 것 없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억압과

21) George Eldon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195.

22) 위의 책, 207-217.

23) Glen H. Stassen &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신광은·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따름의 윤리』 (대전: 대장간, 2011), 47.

착취와 온갖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자유와 해방의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신학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서 공관복음은 이사야 42:1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 42:1-7의 말씀은 종의 사명에서 정의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사야서에서 정의는 네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①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그들이 늘 경험하는 불의로부터 건져 내는 것, ② 권세자의 힘센 발을 그들이 내리누르는 고통 받는 사람의 목에서 치우는 것, ③ 폭력을 중지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 ④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이방인들, 유랑자들, 도피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 등이다.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란 억압받는 자를 구출하고 풀어주는 정의, 곧 해방하는 정의와 힘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를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정당한 지위로 복권하는 정의, 곧 공동체 회복의 정의를 의미한다.<sup>24)</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신학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신학이 되어야 한다.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라이다.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채우며, 단절을 극복하고, 적대성을 종결짓고, 이기주의와 집단 이권에서 세상을 해방시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영역과 생활 영역을 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혁명적으로 실현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표징 안에서 새로운 공동

24) 위의 책, 467, 65-66.

생활의 토대이며 시작이다.”<sup>25)</sup>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가르침에서 사랑의 의미에 관한 네 가지 강조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① 사랑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속박된 사람들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② 사랑은 구원하는 행위를 한다. ③ 사랑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있는 공동체로 초대한다. ④ 사랑은 소외된 사람들을 거절하는 자와 그들이 선호하는 세속적인 가치들, 즉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교회성장주의, 성직주의 등과 맞서게 한다.<sup>26)</sup>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측구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생활의 개시이며 질적으로 새로운 행동에로의 해방이다.”<sup>27)</sup> 그러므로 하나님나라를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신학은 자유와 해방, 치유와 용서, 정의와 사랑, 화해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바로 남북한이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 속에서 구현해가는 실천적 신학이 되어야 한다.

#### IV.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역사

해방 이후 오늘까지 한국 교회의 통일 운동의 흐름은 크게 다섯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게 된다. 첫 번째는 해방 이후에서 50년대까지의 시기이고, 두 번째는 60년대의 통일운동이고, 세 번째는 70년대, 네 번째는 80년대,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90년대 이후의 통일운동이다. 그 첫 번째 시기는 이승만 정권의 제 1공화국 시대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는 “북진통일론”과 “무력통일론”이 유일한 공식정책으로 군림했던 시대이다.<sup>28)</sup> 이 시기

25) Hans Joachim Kraus, 박재순 역, 『조직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21.

26) Glen H. Stassen &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신광은·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따름의 윤리』, 447-460.

27) Hans Joachim Kraus, 박재순 역, 『조직신학』, 22-23.

28) 이창호,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전쟁과 평화전통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2010), 229.

남한교회는 통일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sup>29)</sup> 다시 말해 남한 정부가 북진통일론을 한창 내세우고 있을 때 자유당 정권 하에서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했던 남한 교회들 역시 반공주의 입장을 가지고 북진통일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sup>30)</sup>

두 번째 시기는 4.19혁명에서 5.16까지의 시기와 5.16이후 1960년대까지의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이 두 시기 역시 남한교회의 반공주의적 통일노선은 변함이 없었다. 4.19혁명 이후 남한사회에는 ‘중립화통일론’ ‘평화통일론’ ‘남북교류론’ 등이 대두되는 등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5월 16일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모든 통일 논의를 차단시켰다.<sup>31)</sup> 이렇게 통일논의가 통제된 상황 속에서도 반공이나 무력적 대결 투쟁의 길보다는 평화공존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장했던 박상증목사와 같은 소수의 기독교 인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한 교회지도자들은 조찬 기도회에 참여하는 등 군사정권을 축복하면서 군사정권의 반공국시에 무조건 동의하였다.<sup>32)</sup>

세 번째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났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 8.15 광복절 ‘평화통일선언’을 통해 ‘유일합법정부론’을 포기하고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1972년 남북이 함께

29) 고현영,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평화』 1993. 봄 (서울: 제3세계신학연구소, 1993), 21.

30)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기사연무크 3』 (서울: 민중사, 1991), 101-102; 김명배,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27집(2013), 165.

31) 김명배,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27집(2013), 166.

32) 홍성현,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운동,” 『평화와 통일신학1』 (서울: 한들출판사, 2002), 65-67; 이만열,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38-39.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쌍방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룰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국무회의에서 7.4 공동성명을 발표 사흘 후에 공동성명에 지나친 낙관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공교육을 계속 강화하라고 시달하였는데 이는 7.4공동성명 역시 유신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sup>33)</sup> 유신체제 이후 군사정권은 조국근대화를 명분으로 경제건설에 치중하면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비판 세력을 더욱 탄압하였는데 이에 대해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은 ‘선민주 후 통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모든 민주화운동이 저지당하면서 기독교지도자들은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근본 모순인 분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선민주 후통일’이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은 1978년 “통일은 민주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민주화는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sup>34)</sup>고 하였던 문익환목사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인식도 일부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보수적인 대부분의 교회들은 “통일의 당위는 말하지만 통일 활동은 보류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 교회는 통일운동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다.<sup>35)</sup>

네 번째 시기는 1979년 10. 26 사태로 유신체제가 무너지면서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하여 1988년 시작된 노태우정권 전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역시 통일논의는 정부가 독점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는 남한교회가 본격적으로 통일논의를 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공식적인 통일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1년 6월 서울에서 있었던 ‘한독교회협의회’에서

33) 홍성현, 위의 글, 68; 이만열,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41-42.

34) 문익환, “민주회복과 민족통일,” 『씨알의 소리』 (1978. 7.8월호), 26.

35) 이만열,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43.

였다. 1980년대 교회의 통일운동의 방향은 70년대 말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동시 추구론”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80년대의 통일운동에서 주목할 점은 70년대부터 나온 비판이긴 하지만, 기독교지도자들이 집권자들의 통일논의 독점을 비판하며 ‘민에 의한 통일’론을 주장했다는 점과 해외동포 기독교들과 북한기독교자들의 만남이 있었다는 점(1979년부터 시작되기 했지만)과 1984년 ‘제3차 한·북미 교회협의회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나라라는 것과 그래서 미국교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남겼다는 점 등이다.<sup>36)</sup> 1980년대 통일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이루는 가운데 남북교회가 서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이다. 1984년 일본도잔소에서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가 주관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가 이루어졌는데(20개국 65명의 교회지도자들이 참석) 이 회의는 한반도통일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이 모임을 통해 교회의 통일운동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남북교회가 1986년 스위스 ‘제1차 글리온회의’에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sup>37)</sup> 그 이후에도 남북 기독교자들은 스위스 글리온과 미국과 독일과 일본 등에서 여러 번의 만남을 가졌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민족통일의 문제를 교회의 선교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980년 3월에 “통일은 교회의 선교적 과제”임을 천명했고, 1986년 처음으로 통일문제를 신앙고백서에 포함시켰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도 평화통일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선언했다. 통일이 선교적 과제라는 사실이 가장 강하게 부각된 것은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선언”에서였다.<sup>38)</sup> 이 선언은 통일운동사에

36) 위의 책, 44-47.

37) 위의 책, 46-48; 허문영, “기독교 통일운동,” 기독교학문연구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126-127.

미친 영향이 지대한테 첫째로, 이 선언은 기존의 통일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기독교계 내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둘째로, 이 선언은 노태우대통령의 의한 7.7통일정책선언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셋째로,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개혁교회연맹이 이 선언에 지지뿐만 아니라 세계적 연대의 확대를 제안해줌으로써 통일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sup>39)</sup>

끝으로 1990년대는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동서독의 통일 등 세계상황의 변화에 힘입어 남한교회의 통일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시기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복음주의권도 통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1993년 출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도 그 중에 하나이다. 남북나눔운동은 통일을 준비하는 남한교회의 복음주의권이 주축을 이룬 진보와의 연합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남한교회의 통일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외에도 1994년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아시아미션, 남북나눔운동 등이 참여하여 공동발표한 “1994 한국기독교통일선언”과 1994년 한기총이 발표한 “통일 및 북한선교를 위한 결의문” 등이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1994년 한국교회의 120여 교단 및 연합기관이 총망라되어 평화통일을 함께 추진해 갈 수 있는 ‘한국기독교평화통일추진협의회’가 창립되었다는 점이다.<sup>40)</sup> 그 이후에도 기독교계에서 1995년 8월 15일 “1995년 평화와 통일의 회년선언”이 발표되었고, 1996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한국교회의 통일정책 선언”을 발표하였다.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초교파적으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교인연대’가 발족되었는데 2011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8.15 선언”을 발표하였고, 2014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8) 정원범, 『기독교윤리와 현실』 (서울: 성지출판사, 1998), 108-110.

39) 이만열, 앞의 책, 63-64.

40) 정원범, 앞의 책, 114.

2015년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면서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 인사들로 구성된 ‘광복70주년을맞이한한국그리스도인의선언준비위원회’는 ‘광복 70주년 그리스도인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문은 한국 기독교 사회 선교 단체와 교회가 중심이 돼 평화통일과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의 통일운동은 보수(복음화 또는 복음전도의 차원)와 진보(사회참여 또는 사회선교의 차원)의 연합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데<sup>41)</sup> 이 점에서 최근의 통일운동은 과거에 비해 보다 성숙해진 면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아직도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일방적인 친미, 반공, 반북한 성향의 발언이나 집회를 개최하면서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한교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이다.

## V.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

### 1. 교회윤리적 과제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의 수행은 무엇보다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신앙적인 기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기도와 회개와 교회갱신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우선, 민족 통일의 윤리·선교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 운동을 동력화하는 일이다. 2001년부터 ‘북한사랑’이라는 격월간지를 통해 이루어진 기도운동, 2004년부터 시작된 주빌리 기도회, 2009년 시작된 에스더 기도운동, 2014년부터 시작된 철원목요통일기도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촌목요기도회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네트워크를

41) 정성환, 『한국교회의 남북 분단의식과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2002), 256.

형성하였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은 교단별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2015년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70일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인데 기도운동 마지막 주간인 8월 10~15일에는 전국교회가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민족통일의 윤리·선교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분단체제 안에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 발표한 ‘88선언’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방지의 명목으로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를 범했다.”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가 민족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히 이어져 온 자주적 민족통일운동의 흐름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 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상화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반역죄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권의 뜻에 따른 죄이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해 원수사랑을 적용하지 못한 죄, 분단체제 안에서 분단을 정당화하며 불의한 정권을 지지한 죄,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편승하거나 방관했던 죄 등을 회개해야 한다.

셋째로, 회개와 동시에 남한교회는 민족통일준비와 통일이후 통일한국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개혁과 갱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김동춘교수의 말대로, “한국기독교는 화해의 종교라기보다는 증오의 종교에 가깝다. 전쟁, 분단, 독재의 희생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보다는 그들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민족적 화해사업에 한국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sup>42)</sup>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의 교회 청소년 감소율을 보면 성인 감소율에 비해 네 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회를 떠나간 가장 큰 원인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는 사실 역시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통일한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교회의 자기 개혁과 갱신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 2. 신학적인 과제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원론적인 신학에 바탕을 둔 분단 중심의 반공 신학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민족 통일을 위한 윤리·선교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남한교회는 무엇보다 분단신학을 극복해야 한다. 분단신학은 북한동포들과 탈북자들인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했기 때문이다. 분단의 역사 70년을 회고해 볼 때 한국교회는 남북한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악용해 온 분단체제를 거부하지 못하고 당연시해 왔고, 극우적인 사고를 지지하면서 분단의 고착화에 가세해왔다. 심지어 분단체제

42) <http://www.theosnlogo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

에 저항하면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있는 세상 속에서, 특히 분단된 민족의 현실 속에서 화해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분단신학이란 한마디로 분단체제를 지지하는 반통일신학이고, 기독교의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현상유지 신학이다. 분단신학의 입장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람은 서구의 유명한 기독교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이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제국주의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가 분단되고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은 제국들의 대결의 결과로서 불가피하며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sup>43)</sup>

이런 분단신학의 바탕 위에서 한국교회는 북한을 적대했고, 탈북자 형제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잘못을 범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족통일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남한교회는 무엇보다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분단신학부터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단신학은 반공신학으로 이어지는데, 민족통일신학 정립을 위해서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 반공이데올로기는 분단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고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 교회가 반공주의의 입장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였다. 한국에는 1920년대 초부터 소련과 일본으로부터 사회주의가 소개되었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독교인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자들과 대화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기독교 안에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생겼을

43)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 (서울: 한울, 2006), 59.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에드윈 라이샤워는 미국이 한반도를 38도선에서 분단하기로 결정하고 소련의 협력을 얻게 된 것은 역사적 실수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위의 책, 43)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1950년의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반공의 보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반공주의적 한국 기독교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정부와 협조하며 함께 반공운동에 앞장섰다.”<sup>44)</sup> 반공을 국시로 내건 보수적 정부를 보수적이며 반공적인 교회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고,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모임, 대형 부흥집회 등 반공적인 집회들을 장소나 장비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했다.<sup>45)</sup> 6.25전쟁을 거치면서 전투적 반공주의로 변한 극단적인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척하고 극우적인 반공정권을 무조건 지지하였다. 이렇게 정부와 밀착되어 있었던 기독교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자를 마귀로 여기고 반공주의의 승리를 위해 죽어야 하는 존재로 여겼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공신학에 내재된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보게 된다.<sup>46)</sup>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동포와 탈북자들을 비인간화시키는 극단적 반공신학을 버려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극단적 반공주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행위<sup>47)</sup>이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빠져 북한을 철저히 원수로 여기고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 왔던 일에 대해 죄책고백을 하기를,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개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

44) 권진관, “분단된 국가에서의 교회: 냉전체제로 구조화된 한국 개신교에 대한 한 분석,” 한국기독교학회, 『제43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2014. 10.31), 367.

45) 위의 책, 368.

46) 임희모, “남북한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운동으로서의 선교,” 『선교와 신학』 35집(2015 봄호), 131-132.

47) WCC, 『An Ecumenical Call to Just Peace』,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컬 선언,” 『정의로운 평화동행』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9-20.

님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죄(요 13:14-15, 4:20-21)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계명을 어긴 죄이며, 분단에 의하여 고통받았고, 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죄(요 13:17)”라고 고백했던 것이다.<sup>48)</sup>

분단과 반공을 기반으로 한 신학은 교회를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뜨린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민족통일의 윤리적 과제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남한교회는 이원론신학을 극복해야 한다. 보수적인 목사나 교인들은 종종 ‘민족통일은 신앙의 영역을 떠난 정치적 사회적 문제이다’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하며 통일과 같은 전문적인 정치 문제에 개입하느냐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생각은 루터의 두 왕국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은 세속정부가 이성에 따르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세속 정부는 하나님에 인간의 지배 아래 둔 육체적이고 잠정적인 일들만 관여하지, 영혼의 문제와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판권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은 어떻게 세속 정부를 다스리고 유지하는지 가르치지 않으며, 단지 세속 정부에 대립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보여 준 것처럼 세속의 일에 대해서는 이교도들이 잘 말하고 가르칠 수 있다.”<sup>49)</sup>고 하였다. 이처럼 “루터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삶의 영적이고 사적인 부분에 제한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신성화한다. 루터의 기독교 신앙의 비정치화는 현 체제에 강한 정당화를 제공한다.”<sup>50)</sup>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신학은 반기독교적인 신학이다. 그도 그럴 것이

48) NCCK,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 앞의 책, 409-410.

49) Duncan B. Forrester, *Theology and Politics*, 김동건 역, 『신학과 정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57.

50) 위의 책, 58.

하나님은 사회적이고 사회, 정치, 경제에 깊숙이 참여하는 분이기 때문이다.<sup>51)</sup>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불의와 악을 싫어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며,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남한사회의 구조적 악의 근원인 분단의 문제와 그로 인한 탈북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화해와 평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선교, 탈북자선교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큰 장애물인 이원론신학부터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사회윤리적 과제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운동은 교회윤리적인 과제이고, 신학적인 과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윤리적인 과제이다. 첫째, 남북한의 평화통일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사회 안에서 사회변혁적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 민족의 내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남북한 사회의 진정한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서독 통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통일의 문제는 제도적이고 외적인 통일의 성취보다 통일이후의 진정한 통합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남한교회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북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광복70주년을맞이한한국그리스도인의선언준비위원회’는 ‘광복 70주년 그리스도인 선언문’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변혁적 과제를 10가지로 제시

51) Kenneth Leech, *The Social God*, 신현기 역, 『사회적 하나님』 (서울: 청림출판, 2009), 24-27.

하였는데 세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제헌헌법 제84조가 선언한 대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 정치경제의 기본이다.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상속의 범위를 최소화하며 투기소득에 중과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천민자본주의와 사회적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시장근본주의를 극복하고 정의롭게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7.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공동체를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정착시켜야 한다. 부정직한 지도자를 처벌하는 주민소환제와 공명선거제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징벌적 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 과도한 소비를 절제하고 검소와 절약을 생활화해야만 올바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노인과 어린이들을 잘 보양하며, 장애인들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8. 토지와 물과 공기와 우주공간은 인류가 자자손손 공유해야 할 공동체적 자산이다. 배타적 점유권과 이윤동기에 의한 자연 훼손과 남용은 마땅히 절제되어야 한다.”<sup>52)</sup>

그 다음 사회윤리적인 과제는 남북 간의 화해와 남북한 더불어 살기를 위한 나눔을 실천이다. 한국교회는 남북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와 증오심을 제거하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회복해가는 화해운동을 펼쳐나가는 동시에 동포애를 발휘하여 굶주리는 북한 동포와 탈북자들을 돕는 나눔운동<sup>53)</sup>을 실천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북한 나눔운동은 성경이 말하는 회년운동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남북한 나눔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였는데 이 운동은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돕기 위해 기독교계의 진보와 보수가 함께 연합하

52) <http://www.newsm.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206>

53) 박종화, “교회회년과 민족회년을 위한 신학적, 실천적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 (서울: 도서출판 감신, 1995), 31-33.

여 펼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한국교회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북한주민돕기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들 보수적인 정권이 취해온 ‘대북 상호주의에 입각한 강경책’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은 많이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길이 약간은 열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부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안목을 가지고 민간단체들이 북한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북한지원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과의 교류가 가능한 외국의 기관들이나 인사들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지원의 방식은 긴급구호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긴급구호의 성격에서 식량증산프로젝트와 같은 개발지원적 사업의 형태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sup>54)</sup>

더 나아가서 교회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중단된 후 60년 동안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은 핵무기 비축을 비롯한 방어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 기술적 측면에서 전쟁상태를 계속 유지”<sup>55)</sup>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CC는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는데 남한교회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의 긴급성을 인식하여 평화협정을 위한 폭넓은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은 남북한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핵무기 없는 동북아지역

54) 황홍렬, 『한반도에서 평화선교의 길과 신학』 (서울: 예영 B&P, 2008), 328-330; WCC,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한국기독교공보』 2013. 11. 8.

55) WCC,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한국기독교공보』, 2013. 11. 8

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sup>56)</sup>

끝으로 교회는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란 그것이 곧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결과로서의 통일’이라기보다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결과로서의 통일’은 남, 북 한 쪽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런 통일은 그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남북 간의 적대성만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sup>57)</sup> 이에 반해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통일을 어느 한 순간의 어떤 사건(전쟁, 붕괴 등)으로 보지 않고 형성적인 것으로 본다. 즉 남과 북의 분단이 극복되고 이질성이 완화되어 동질성이 강화되며 새로운 통일국가의 질이 형성되는 과정이 곧 통일”이라고 보는 것이다.<sup>58)</sup> 다시 말해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는 과정’이 곧 통일의 과정인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초대수상이었던 아데나워는 ‘새로운 독일’을 만든다는 건국의 비전이 있었다. ... 새 독일, 즉 독일연방공화국은 기본법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공권력의 의무이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독일국민의 모든 의식을 바꾸고 제도를 새롭게 창조해갔다.”<sup>59)</sup>고 한다. 통일의 과정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 그 일은 무엇보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선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예행연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한국의 새로운 미래비전은 무엇일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통일한국이

56) 위의 글.

57) 배기찬, “북한과 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출판위원회, 『평화통일과 한국교회』 (도서출판 평통기연, 2014), 75.

58) 위의 글, 76.

59) 위의 글, 76-77.

하나님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sup>60)</sup> 다시 말해 성경이 제시하는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은 통일한국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나라, 자유와 해방이 꽃피는 나라, 치유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사랑이 하수같이 흘러가며, 화해와 평화가 바다물결같이 출렁이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sup>61)</sup>

##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통일운동은 남한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한반도의 분단과정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운동의 토대로서의 평화통일신학, 남한교회의 통일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한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교회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제를 단순히 선교적 과제라 하지 않고 윤리·선교적 과제라고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을 위한 과제는 선교적 과제이며 동시에 윤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행위들을 신앙적으로,

60) 김상복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1.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통일한국, 2. 사랑을 추구하는 통일한국, 3. 평등을 추구하는 통일한국, 4. 평화를 추구하는 통일한국, 5.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통일한국, 6. 자유를 추구하는 신본주의 통일한국, 7. 섬김과 일치를 추구하는 통일한국, 8.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된 통일한국, 상식이 통용되는 통일한국,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한국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상복,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공동체 통일한국,” 강승삼 외, 『평화통일과 북한복음화』 (서울: 쿰란출판사, 1997), 22-39.>

61) 정원범, 『교회·목회·윤리』 (서울: 쿰란출판사, 2008), 93-102.  
“교회는 시장경제가 줄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주는 곳이지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평등은 있지만 자유가 없고, 서구에는 자유는 있지만 평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몰트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재영, “통일 후 교회의 역할,” 『통일·사회통합·하나님나라』, 179)

신학적으로 바로 잡는 것을 포함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곧 교회의 윤리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위와즈가 말한 대로 “기독교사회윤리의 첫 번째 과제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교회는 사회윤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사회윤리이다.”<sup>62)</sup> 말하자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위의 아홉 가지 과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윤리적 과제이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sup>63)</sup>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인 것이다.

독일 통합 직후 당시 서독교회협의회 총무였던 헬무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sup>64)</sup>

우리 모두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었고 한 민족이었기에 통일이 되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일이 되고 나니 우리는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통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의 경험을 시급적으로 삼아 통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십시오, 사실 우리는 서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볼 수 있었으며, 방문도 가능하여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일이 되고 보니 우리는 너무 서로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통일을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서독과 달리 남북 사이에는 서신교환, 상호방문은 물론 서로 알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 Duncan B. Forrester, *The True Church and Morality*, 김동선 역, 『참된 교회와 윤리』, 79.

63) Carlos F. Cardoza-Orlandi, *Mission: An Essential Guid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2), 15.

64) 김동선, “민족통일과 북한선교,” 호남신학대학교 편, 『기독교와 한반도평화정착』 (서울: 한들출판사, 1998), 210-211.

더군다나 동서독 사이에는 전쟁은 없었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전쟁으로 서로 피 흘린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했다고 알려진 독일이 이처럼 통일이후 통일의 후유증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통일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교회는 독일이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족의 통일을 위한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남한교회들은 분단체제 안에 안주하였고, 통일을 윤리적, 선교적 과제로 잘 생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남한교회는 이제부터라도 민족통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적, 선교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민족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분단된 민족의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곧 이웃의 아픔과 민족의 고통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윤리실천운동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은 남한사회와 통일한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멋진 생명선교, 정의선교, 화해선교, 평화선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승삼 외. 『평화통일과 북한복음화』. 서울: 쿠파출판사, 1997.
- 김현진. 『공동체적 교회회복을 위한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남태욱. 『한반도 통일과 기독교 현실주의: 라인홀드 니버를 중심으로』. 서울: 나눔사, 2012.
-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 서울: 한울, 2006.
- 박종화. 『평화신학과 에큐메니칼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이신건. 『조직신학입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정성한. 『한국교회의 남북 분단의식과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2002.
- 정원범. 『기독교윤리와 현실』. 서울: 성지출판사, 1998.
- \_\_\_\_\_. 『교회·목회·윤리』. 서울: 쿠파출판사, 2008.
- 통일교육원. 『2013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원 통일교육원, 2013.
- 통일교육원. 『2014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원 통일교육원, 2014.
- 황홍렬. 『한반도에서 평화선교의 길과 신학』. 서울: 예영 B&P, 2008.
- 고현영.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평화』 1993. 봄. 서울: 제3세계신학연구소, 1993.
- 권진관. “분단된 국가에서의 교회: 냉전체제로 구조화된 한국 개신교에 대한 한 분석.” 한국기독교학회, 『제43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4. 10. 31.
- 김동선. “민족통일과 북한선교.” 호남신학대학교 편. 『기독교와 한반도평화정착』. 서울: 한들출판사, 1998.
- 김명배.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27집. 2013.
-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기사연무크 3』. 서울: 민중사, 1991.
- 문익환. “민주회복과 민족통일.” 『씨알의 소리』. 1978. 7. 8월호.
- 박종화. “교회회년과 민족회년을 위한 신학적·실천적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 서울: 도서출판 감신, 1995.

- 배기찬. “북한과 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교인연대 출판위원회. 『평화통일과 한국교회』. 도서출판 평통기연, 2014.
- 신옥수. “평화통일신학의 형성과 과제: 하나님나라 신학의 빛에서.” 『선교와 신학』 35집. 2015.
- 이만열.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 이창호.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 전쟁과 평화전통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 임성빈. “세대차이와 통일인식에 대한 신학적 반성.” 『장신논단』 46-2.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4.
- 임희모. “남북한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운동으로서의 선교.” 『선교와 신학』 35집. 2015 봄호.
- 정재영. “통일 후 교회의 역할.” 『통일·사회통합·하나님나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홍성현.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운동.” 『평화와 통일신학1』. 서울: 한들출판사, 2002.
- 허문영. “기독교 통일운동.” 기독교학문연구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 NCKK.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 허호익. 『통일을 위한 기독교신학의 모색』. 서울: 동연, 2013.
- Cardoza-Orlandi, Carlos F. *Mission: An Essential Guid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2.
-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and International Christian Network for Democracy in Korea, ed. *Reunification: Peace and Justice in Korea*, 1988.
- Downy, Michael.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New York: Paulist Press, 1997.
- Forrester, Duncan B. *Theology and Politics*. 김동건 역. 『신학과 정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Kraus, Hans Joachim. 박재순 역. 『조직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Ladd, George Eldon. *The Presence of the Future*. William B. Eerdmans

- Publishing Company, 1996.
- Leech, Kenneth. *The Social God*, 신현기 역. 『사회적 하나님』. 서울: 청림출판, 2009.
-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장경철 역. 『기독교조직신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Noh, Jong-Sun, *The Third War: Christian Social Ethics*.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Press, 2000.
- Stassen, Glen H. & Gushee, David P. *Kingdom Ethics*. 신광은·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따름의 윤리』. 대전: 대장간, 2011.
- WCC. 『An Ecumenical Call to Just Peace』,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컬 선언.” 『정의로운 평화동행』.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WCC,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한국기독교공보』. 2013. 11. 8.
- 화전춘수, “日 ‘역사의 진실’ 회피 못한다.” 『동아일보』 1995. 2. 2.
- <http://www.theosnlogo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
- <http://www.newsm.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206>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5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4일

---

• 국 문 초 록 •

---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운동은 남한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한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분단과정과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서의 통일운동은 기독교인의 마땅한 윤리·선교적 과제이다. 하나님과 화해된 기독교인은 화해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통일운동은 굶주리는 북한동포와 탈북자들을 돕는 사랑의 행위이고,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분단 상황을 악용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온 기독교세력의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행동이다.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통일운동은 남한교회가 동북아시아에서 하나님나라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윤리·선교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 통일 운동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평화통일신학 정립을 위한 윤리·선교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는 교회 내의 윤리적인 과제로 기도와 회개와 교회갱신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신학적인 과제로 이원론적인 분단신학과 반공신학을 극복해야 하며, 사회윤리적인 과제로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하며 더욱 더 북한을 돕는데 앞장서며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해야 한다.

**주제어:** 한반도의 분단, 통일의 필요성, 평화통일신학, 통일을 위한 윤리/선교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